

韓中수교 15년 “얻은 게 없다”

지역민 中 출국, 중국인 입국의 28배 전남 對中수출 원자재 편중 효과 미미

24일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중국 교류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수교에 따른 수혜에서 밀려나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화동권(華東圈)과 근접한 데다 역사·문화적 인연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풍부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관광 인프라, 단순한 대 중국 무역구조 때문에 수교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교 이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주민과 중국인의 상호 방문 편차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중국을 방문

한 한국인은 286만 5천여 명이었으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78만 2천여명으로 대략 3대1의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제 관문인 광주공항을 통해 관광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지역민은 5만 3천여명인데 반해 같은 경로로 지역을 방문한 중국인은 1천 900여명에 불과해 편차는 무려 28대 1이나 됐다.

이와함께 무역 대상으로서 지나친 중국 편향과 단순한 무역 구조도 광주·전남이 '중국 발'에 편승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광주·전남 무역협회가 집계한 연도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전체 수출액 190억

4천521만 달러 가운데 대 중국 수출액이 전체의 31%인 58억 9천799만 9천 달러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잦은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대두되고 있다.

전남지역 대 중국 수출 품목 또한 석유화학·유류제품·철강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드넓은 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광주의 최근 5년동안 주요 수출국은 미국·싱가포르·일본·대만·중국 순으로 다양화돼 전남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중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을 맺고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성화와 관광 수입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전남도의 경우 23일 현재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중국의 12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도 본청은 중국의 6개 성·시와, 9개 시·군은 중국의 18개 자치단체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한·중수교=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할 후 거의 30년 동안 한·중은 완전 단절됐으나 1970년대 초 미·중 화해무드로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중 양국은 체육·관광·친척 방문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

를 시작해 1990년에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했다. 이어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며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7개 축협이 공동출자해 탄생한 지리산 순한한우가 우수한 육질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4년만에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구례군 산동면 순한한우 농장. /구례=김동호기자 dhkim@

‘3통’으로 한우시장 평정

<중자·사료·사육 통일 관리>

전남지역 7개 축협이 출연해 만든 최고 브랜드 '지리산 순한한우'가 올 전국 축산물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 이어 2연패다.

'지리산 순한한우 사업단'은 순천·광양 축협을 비롯, 고흥·곡성·구례·보성·여수·장흥 등 7개 지역 축협이 출연해 지난 2003년 출범했다.

원칙을 고수해왔다. 또 생후 24개월부터 2개월 단위로 컨설팅을 통해 열등종을 걸러냈고, 30개월 이후 출하를 앞두고는 ▲병해충을 고려해 밀식(密植)이 아닌 소식(疏植) 사육 ▲철저한 1등급 출하 ▲정부 생산이력관리시스템 등을 철저히 지켰다.

이덕수 농협전남본부장은 "지리산 순한한우의 풍부한 육질과 부드러운 육질은 수입쇠고기가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지녔다"고 말했다.

간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업단 전체 연간 200여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에는 300여원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 300억 매출 목표

지리산 순한한우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7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최고상과 함께 10억원의 무이자 자금도 지원받는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99개 유명 축산물 브랜드가 참가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 7개축협 공동브랜드

브랜드 탄생 불과 4년만에 전국 최고 한우로 꼽히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리산 순한한우만의 경쟁력은 이른바 '3통(統) 사육 방식'에서 나온다. 즉 종자·사료·사육 관리를 하나로 통일·일

특히 지리산 순한한우는 NH투자증권·미래에셋·롯데쇼핑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80억원 규모의 한우펀드를 조성,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경영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전남농협 안병량 축산팀장은 "당장 펀드이윤과 한우판매를 통해 가구당 100마리를 사육할 때 연

“先투자로 수요 창출”

민주신당, 광주·전남 예산확보 3원칙 제시

열린우리당과 통합으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대통합민주신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의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 ▲비교 우위 자원의 적극 활용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선(先) 투자 ▲투자 유도할 후속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원칙 아래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지방순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광주·전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수요만을 기준으로 한 사업타당성 검토라는 함정 때문에 영남과 수도권에 늘 뒤처져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서남해안 발전축이자 동북아 물류거점, 전통문화, 현대적 문화자원 등 광주·전남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강점을 살려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발전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수요 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선 투자가 수요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조기에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역현안과 민생문제를 철저히 챙겨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社告

제26회 광주·전남여성경제인 포럼 정병석 총장 '인재개발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정병석 총장

기술교육대 총장이 강사로 나서 '인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8월 28일(화)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인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강사 :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유형별 장학금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신입생 장학금 100% 지급
062-340-1111

세계를 향하는 미래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062-340-1111

LANEIGE